

numbers 제 97호



주요 내용

2021.05.28

- 이번 주 주제 : [한국인의 종교, 1984-2021]
- 종교인 비율, 최근 7년 사이 10%p 감소!
- 최근 언론보도 통계
[동성 결혼 관련 국민 인식]
- 동성 결혼 법제화, '찬성' 38%, '반대' 52%
[대학 입학생 감소 실태]
- 대입 연령 인구, 2021년을 기점으로 입학 정원보다 적어지기 시작하여
2024년까지 급감 예상!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홈페이지 | www.mhdata.or.kr
E-mail | mhdata@mhdata.or.kr
전화 | 02.322.0726

일반 사회 통계

종교인 비율, 최근 7년 사이 10%p 감소!

10년 전에 충남 공주에 있는 어느 교회 주일예배에 방문한 적이 있다. 20여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얼핏 눈으로 보아도 거의 7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이었다. 60대 목사님이 그 가운데 가장 젊은 사람이었다고 들은 기억이 난다. 10년이 지났으니 지금은 모두 80세를 넘기셨을 거고... 그 교회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교인의 고령화와 신규 교인의 부재는 비단 이 교회의 일만 아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대부분의 교회에서 겪는 일이다. 또 개신교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모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일부 신흥종교를 제외하면 기존 종교는 모두 같은 고민을 안고 있다.

최근 발표된 갤럽 조사 결과, 지난 7년 사이 우리나라 종교인이 10%p 감소하여, 무종교인이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종교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증거이다.

이번 목회데이터연구소 [넘버즈] 97호에서는 탈종교화/세속화 현상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그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종교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지적이 넘치는 시대에 거시적 관점에서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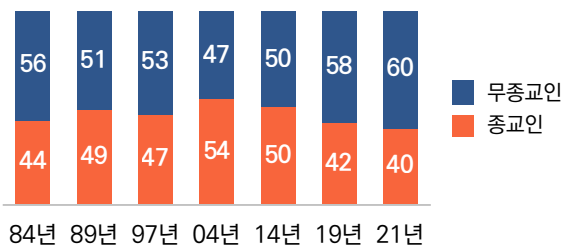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 자료 출처(생산자)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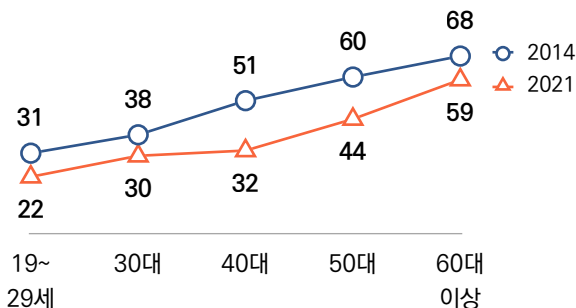
한국 사회 탈종교화 심화, '무종교인' 60%

- 한국 갤럽이 최근 발표한 '한국인의 종교 1984~2021'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 만 19세 이상 종교인 비율은 2004년 54%까지 높아졌다가 그 후로는 계속 감소하여 2021년에 40%로 줄어든 반면, 무종교인은 60%에 달해 2014년 이후 한국 사회의 탈종교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종교인 감소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2004년에서 2014년까지 10년 사이 종교 인구가 54%에서 50%로 4%p 줄었는데, 2014년부터 2021년까지 7년 사이에는 50%에서 40%로 10%p까지 줄어들었다.
- 2014년 대비 2021년을 보면 전 연령대에서 감소했다. 즉, 탈종교 현상은 전 연령대에서 나타난다.
- 40대 이하 젊은층의 종교인 비율이 30% 안팎까지 떨어져 향후 종교인의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된다.

[그림] 종교인 비율 변화(1984~2021) (%)



[그림] 연령별 종교인 비율 변화(2014 vs 202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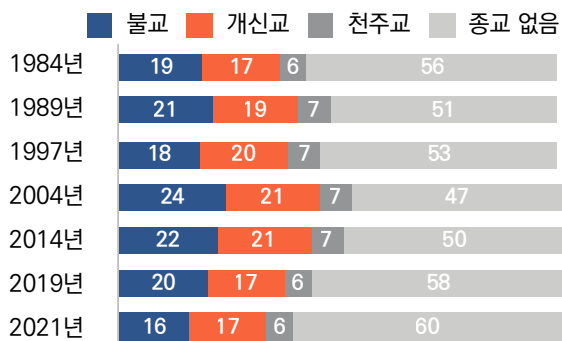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갤럽, '갤럽리포트:한국인의 종교 1984~2021', 2021. 5. 18~20(제주 제외 전국 만19세 이상 1500명, 면접조사, 2021.3.18~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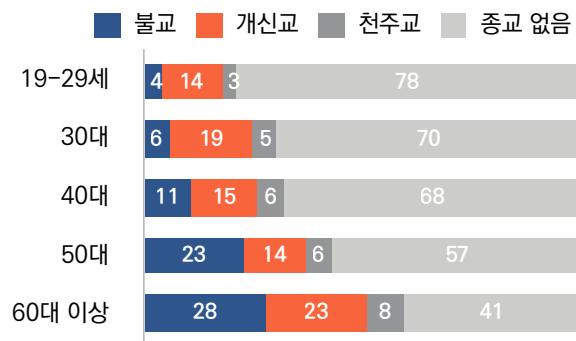
● 개신교 인구 비율 21%(2014년) → 17%(2021년)

- 2021년 한국인의 종교 분포는 개신교 17%, 불교 16%, 천주교 6%로 만 19세 이상 인구 기준으로도 개신교가 한국의 최다 종교가 됐다.
- 종교인 비율이 가장 높았던 2004년과 비교하면 2021년 불교는 8%p, 개신교는 4%p, 천주교는 1%p 감소했다. 즉 모든 종교에서 그 비율이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 코로나19 이전(2019년)과 이후(2021년)를 비교할 때 불교의 감소세가 두드러졌고 개신교나 천주교는 주변 우려와 달리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 불교는 20~30대 연령층에서 5% 안팎의 매우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림] 종교 분포 변화(1984~2021)



[그림] 연령별 종교 분포(2021년) (%)



*자료 출처 : 한국갤럽, '갤럽리포트:한국인의 종교 1984~2021', 2021. 5. 18~20(제주 제외 전국 만19세 이상 1500명, 면접조사, 2021.3.18~4.7)
note) 19~29세와 50대연령층에서 각각 기타종교 1%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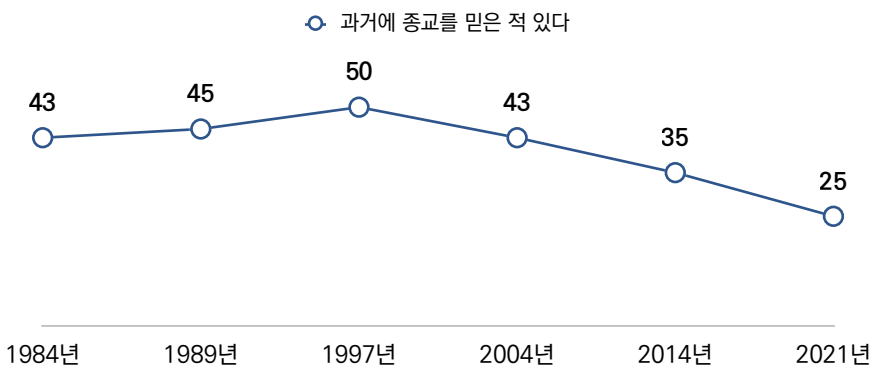
2



과거, '종교 믿은 적 있다' 25%

- 1997년에는 무종교인 가운데 절반(50%)이 과거 종교를 믿은 적 있어서 종교는 우리 사회 저변에 넓게 형성되어 있었으나 그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21년에는 25% 밖에 되지 않았다.
- 그만큼 우리 사회가 종교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무종교인의 과거 신앙 경험(1984~202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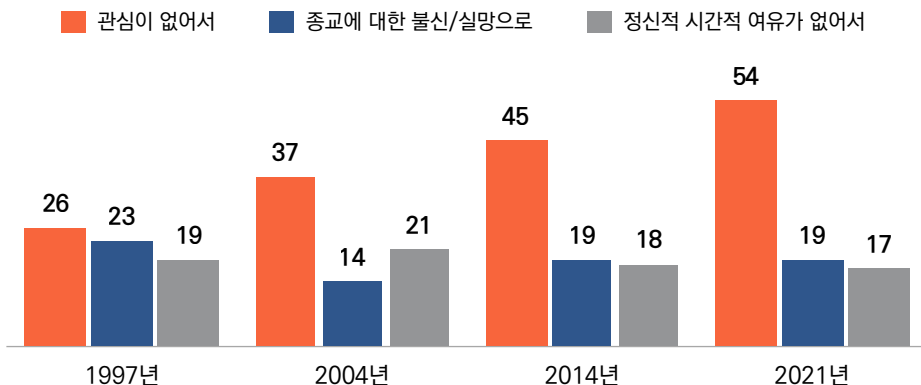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갤럽, '갤럽리포트:한국인의 종교 1984~2021', 2021. 5. 18~20(제주 제외 전국 만19세 이상 1500명, 면접조사, 2021.3.18.~4.7)

● 무종교인, '종교에 관심 없다' 54%

- 왜 사람들은 종교로부터 멀어질까? 종교가 타락해서? 종교가 자기 밖에 몰라서? 종교 기관에 나갈 시간이 없어서?
- 그렇지 않다. 일부 그런 면도 있지만 이 시대의 사람들은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종교로부터 멀어진 것이다. '종교에 관심이 없어서 종교를 믿지 않는다'고 응답한 무종교인 비율이 1997년에는 26%밖에 되지 않았지만 2021년에는 무려 절반 이상인 54%나 된다는 것은 앞으로 기존 종교에 대한 커다란 위기가 아닐 수 없다.

[그림] 무종교인이 종교를 믿지 않는 이유(상위 3개) (%)



*자료 출처 : 한국갤럽, '갤럽리포트:한국인의 종교 1984~2021', 2021. 5. 18~20(제주 제외 전국 만19세 이상 1500명, 면접조사, 2021.3.18.~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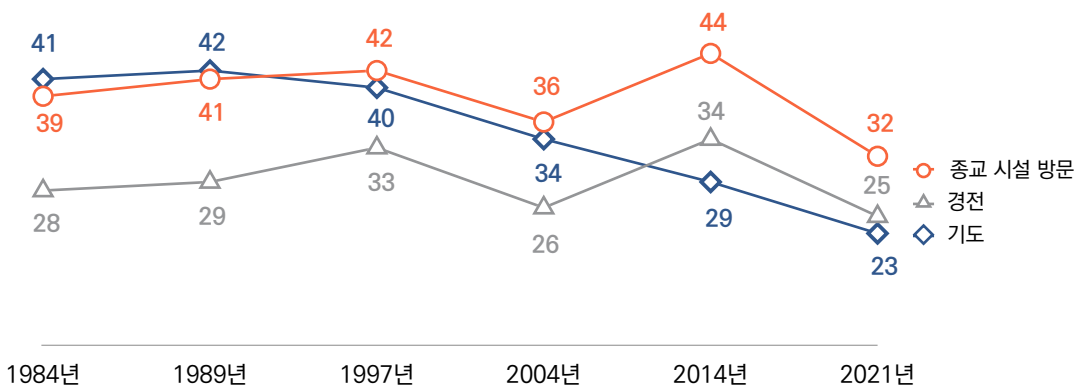
3



종교인의 종교 활동, 점점 위축되어 간다!

- 사회에서 종교의 기반이 약해진다는 것은 비종교인이 늘어나는 현상 외에 종교인들의 종교 활동이 움츠러 든다는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비록 기독교적 관점의 평가이기는 하지만 1주일 동안에 행하는 종교 활동, 즉 종교 시설 방문, 경전 독서자, 기도/기원자 비율이 1997년을 기점으로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현상이 보인다. 종교인의 종교 활동이 줄어 든다는 것은 종교가 차지하는 위상이 종교인 사이에서도 점차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종교인 중 주 1회 종교 관련 활동 비율(종교 시설 방문 vs 경전 vs 기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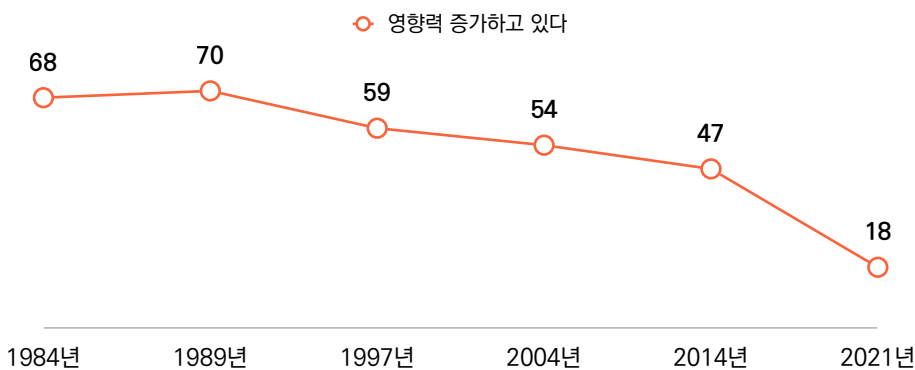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갤럽, '갤럽리포트:한국인의 종교 1984~2021', 2021. 5. 18-20(제주 제외 전국 만19세 이상 1500명, 면접조사, 2021.3.18.~4.7)

●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 70%(1989년) → 18%(2021년)

- 사회가 종교로부터 벗어나는 현상은 사회적 영향력 측면에서도 드러난다. 1980년대만 해도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비율이 무려 70% 정도나 되었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서 영향력이 증가한다는 응답률이 낮아지기 시작해서 2014년에는 47%까지 낮아졌다. 즉 종교의 사회적 존재감이 약해지고 있는 것이다.
- 2021년에는 더 급격하게 낮아져서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18% 밖에 되지 않았는데 아마도 코로나 19 상황에서 종교 특히 개신교가 감염의 주요 경로로 지탄을 받게 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그림]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 인식 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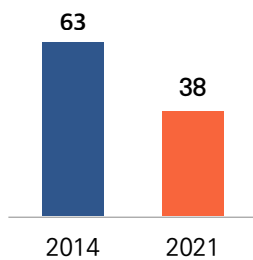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갤럽, '갤럽리포트:한국인의 종교 1984~2021', 2021. 5. 18-20(제주 제외 전국 만19세 이상 1500명, 면접조사, 2021.3.18.~4.7)

● ‘종교가 사회에 도움을 준다’ 63%(2014년) → 38%(2021년)

- 종교의 영향력이 줄고 있다고 느끼는 이 시대에 그러면 종교가 사회에 얼마나 도움을 줄까? 2014년에는 ‘종교가 사회에 도움을 준다’는 응답이 63%나 되었지만 2021년에는 38%로 25%p나 크게 낮아졌다.
- 2021년 각 종교별로 보면 종교의 사회적 기여도에 대해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개신교인은 80%가 종교가 사회에 도움을 준다고 했는데 무종교인은 18%만이 인정을 해서 인식의 격차가 매우 크게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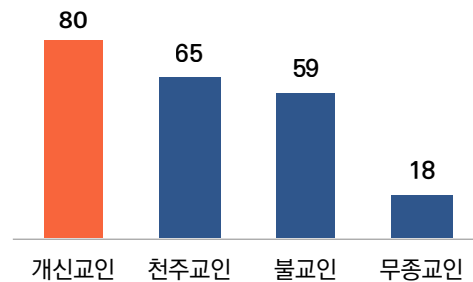
[그림] 종교의 사회적 기여도** (%)

‘종교가 사회에 도움을 준다’



[그림] 2021년 종교의 사회적 기여도** (%)

‘종교가 사회에 도움을 준다’(각 종교별)



*자료 출처: 한국갤럽, ‘갤럽리포트:한국인의 종교 1984~2021’, 2021. 5. 18~20(제주 제외 전국 만19세 이상 1500명, 면접조사, 2021.3.18.~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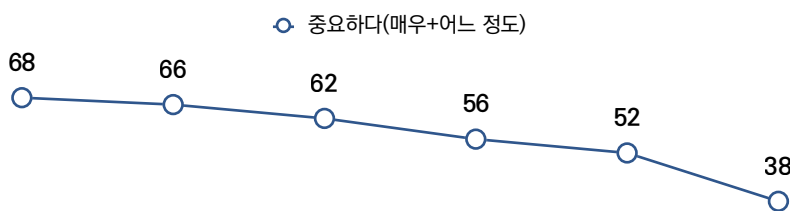
**4점 척도 질문으로 ‘매우+약간’ 도움을 준다 비율임

● ‘종교가 나의 개인 생활에 중요하다’ 52%(2014년) → 38%(2021년)

- 종교가 사회로부터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면 개인 생활에서는 어떨까? 개인 영역에서도 종교는 그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 종교가 개인 생활에 중요하다는 응답이 1984년에는 68%나 되었지만 그 후에 계속 줄어들었다.
- 2014년 52%에서 2021년에는 38%로 급격하게 줄어들었는데 아마도 코로나19의 영향이 아닌가 추정된다.

[그림] 개인 생활 속 종교의 중요성 인식 변화

(%)



1984년 1989년 1997년 2004년 2014년 2021년

*자료 출처: 한국갤럽, ‘갤럽리포트:한국인의 종교 1984~2021’, 2021. 5. 18~20(제주 제외 전국 만19세 이상 1500명, 면접조사, 2021.3.18.~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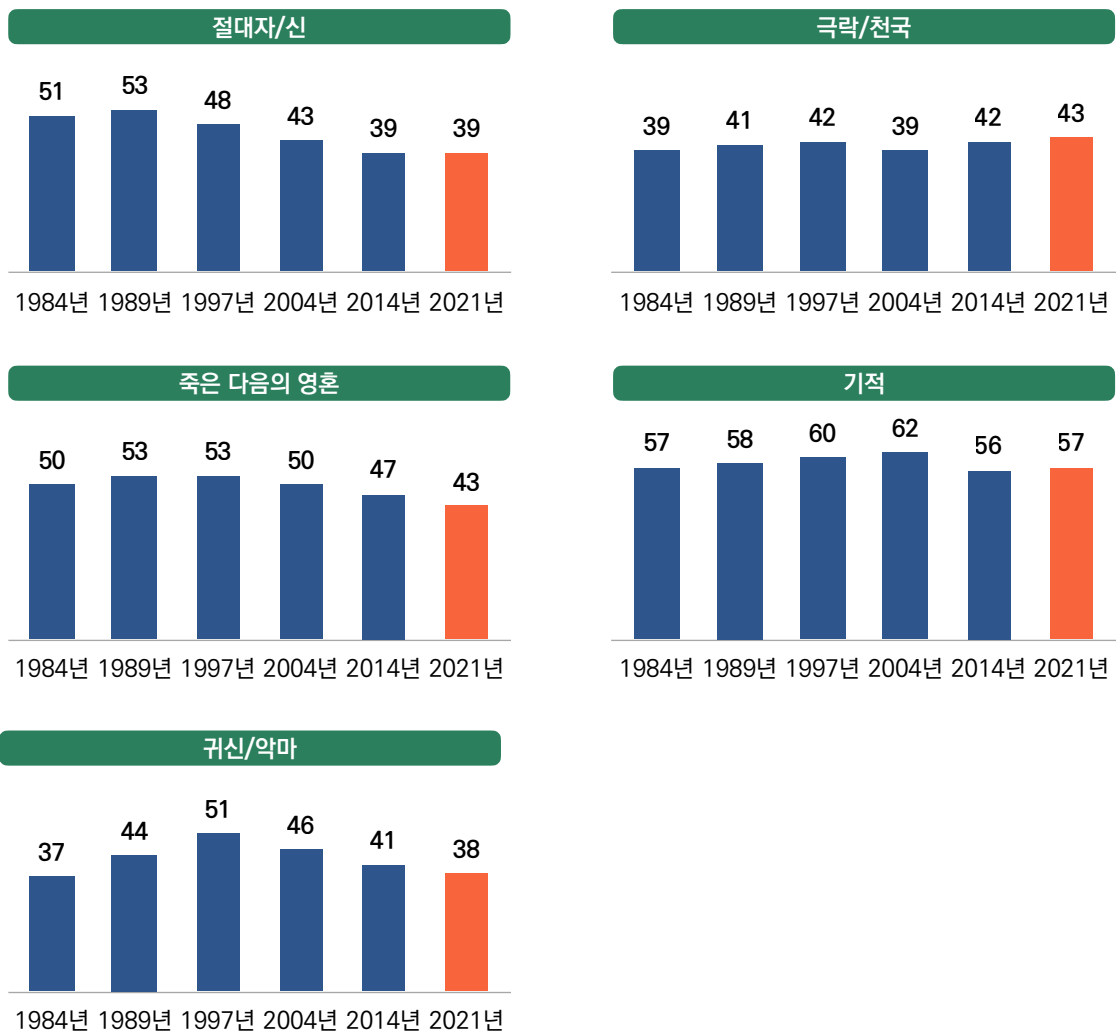
4



한국인, ‘초자연적 존재는 믿고 있다’ 40% 선

- 절대자/신, 극락/천국, 사후 영혼, 기적, 귀신/악마와 같은 초월적 실재 혹은 초자연적 현상에 대해 40% 내외의 한국인이 믿고 있다.
- 절대자/신의 존재는 1989년 53%, 2004년 43%에 이어 2021년 39%로 줄어들었지만, 극락/천국의 존재는 1984년 39%, 1997년 42%, 2021년 43%로 오히려 약간 증가했다.
- 전체적으로 탈종교화가 심해지고 있지만, 초자연적 개념에 대한 믿음은 40%선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초 자연적 개념에 대한 믿음, '존재한다' 비율 (%)



*자료 출처 : 한국갤럽, '갤럽리포트:한국인의 종교 1984-2021', 2021. 5. 18-20(제주 제외 전국 만19세 이상 1500명, 면접조사, 2021.3.18.~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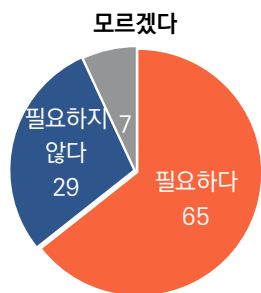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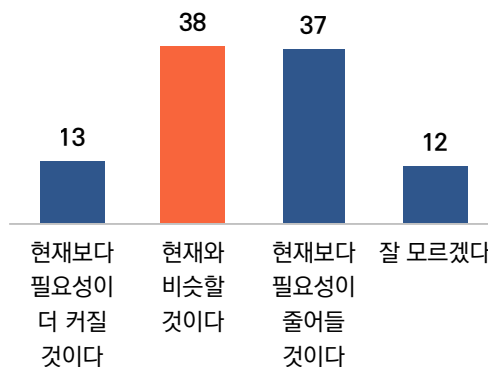
코로나 시대, 종교가 '필요하다' 65%

- 우리 국민은 본인의 종교 여부와 관계없이 종교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할까? 작년 코로나19 기간 중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질문한 결과, 종교가 '필요하다'(매우+어느정도) 65%, '필요하지 않다' 29%로, 우리 국민 3명 중 2명은 종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에는 향후 20-30년 후 미래에는 종교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는데, '현재보다 필요성이 더 커질 것' 13%, '비슷할 것' 38%, '더 줄어들 것' 37%로, 더 줄어든 것이라는 응답이 더 커질 것이라는 응답보다 높았다. 국민의 절반 가량(51%)은 현재보다 종교의 필요성이 더 커지거나 비슷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림] 종교의 필요성 인식
(일반 국민 전체, 2020년) (%)



[그림] 향후 20-30년 후 종교 필요성 변화 예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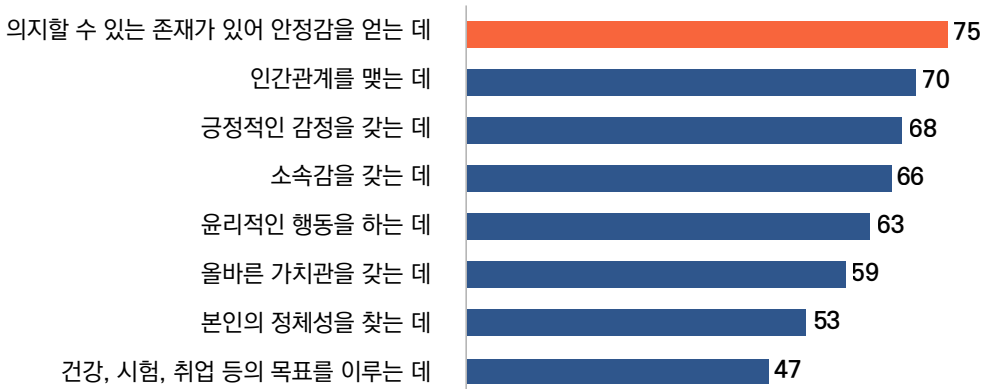


*자료 출처: 예장합동교단, '코로나19 이후 교회생태계 지형 변화 조사' (전국 만19세 이상, 일반국민 1,000명, 온라인조사, 2020.08.13.~20)

● 종교, 유한한 인간이 의지할 초월적 세계

- 종교를 믿어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 질문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있어 안정감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75%로 가장 높았다.
-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서 불안과 공포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그 무엇이 필요한데 바로 그것을 종교에서 찾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과학의 시대라고 하지만 인간에게 종교는 여전히 필요하다.

[그림] 종교가 도움이 되는 영역, '도움이 된다' 비율 (%)



*자료 출처: 한국리서치, '여론속의 여론:사회지표-종교인식조사', 2020. 11. 25(전국 만18세 이상 1000명, 웹조사, 2020. 10. 30~11. 2)



시사점

종교가 위기이다. 통계에서 보듯이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종교 인구가 줄고 있다. 이미 우리는 체감적으로 어느 교회나 교인 수가 정체되거나 줄어 들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다. 그런데 그 줄어드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2004년에서 2014년까지 10년 사이에 종교 인구(19세 이상 성인 기준)가 54%에서 50%로 4%p 줄었는데 2014년부터 2021년까지 7년 사이에는 50%에서 40%로 10%p까지 줄어들었다(3쪽).

종교 인구가 줄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종교인의 타락? 종교의 후진성? 각 종교마다 상황이 다르고 이유가 다르겠지만 종교 일반적으로 확대한다면 종교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세속화' 과정 중에 일어난다. 어느 종교나 '성'과 '속'을 구분하는데 '성'의 영역이 점점 줄어들고 '속'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이 세속화이다. 세속화는 각 개인이 자기 가치관과 일상생활에서 종교적 영향력으로부터 멀어지고, 사회적으로는 사회의 규범과 제도 그리고 사회적 행동들이 종교의 지침과 점점 무관해지는 것까지 의미한다.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서양 근대의 역사를 '합리화' 과정으로 규정했다. 막스 베버가 말한 '합리화'란 '주술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다. 사회적 행동들이 종교의 규제보다는 정부의 감시와 법률 및 제도적 규제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제 종교는 점차 사회적 영역에서 설 자리를 잃게 것이 '합리화'라고 보았다. 미국의 종교사회학자 피터 버거는 이를 '세속화'라는 개념으로 정리했다. 그가 말하는 '세속화'는 사회와 문화의 영역들이 종교의 제도나 상징의 지배로부터 이탈되는 과정이다.

종교사회학자 브라이언 윌슨은 세속화를 종교적 사고, 수행 그리고 제도가 사회적 중요성을 상실하는 과정으로 규정하고 그에 따라 초자연적인 믿음의 약화, 종교적 참여의 감소, 종교적 영향력의 감소가 뒤 따른다고 했다¹⁾.

이번 [넘버스] 분석을 보아도 우리나라는 종교인의 종교에 대한 몰입도가 줄어들고 있고,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과 사회적 기여도가 줄어들고 있으며, 개인 생활에서 차지하는 종교의 중요성이 감소하고 있다(5쪽, 6쪽). 전형적인 세속화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이 모든 판단의 기초가 되는 시대에 종교는 종말을 맞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 국민의 65%가 현재 종교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8쪽). 사회는 세속화, 즉 탈종교화되고 있지만 종교의 기본 전제라고 할 수 있는 초월적 존재와 현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하고 있다(7쪽). 그리고 종교는 유한한 인간이 한계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것(8쪽)이기 때문에 종교는 인간이 존재하는 한 사라질 수 없다. 서구에서 세속화, 탈종교화를 이야기하지만 남미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종교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보아도 종교의 종말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세속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은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세속화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종교적 기능을 새롭게 하자고 하는 입장과 세속화에 저항해서 전통적 교리를 고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어떤 입장을 지지하든 중요한 것은 한국 교회가 탈종교화 국면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어떻게 교회가 나아가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세상의 빛과 진리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할 수 있으며, 많은 기독교인이 참다운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 길을 마련해 주어야 할 책임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1) 이원규, 「한국교회의 사회학」(서울:북코리아, 2018), 20쪽

최근 언론 보도 통계

1. <동성 결혼 관련 국민 인식>
동성 결혼 법제화, '찬성' 38%, '반대' 52%
2. <대학 입학생 감소 실태>
대입 연령 인구, 2021년을 기점으로
입학 정원보다 적어지기 시작하여 2024년까지 급감 예상!

언론 보도 및 이슈 큐레이션

1. 동성 결혼 관련 국민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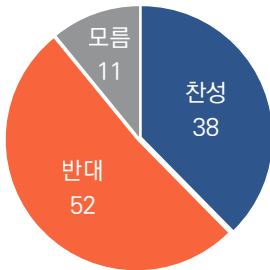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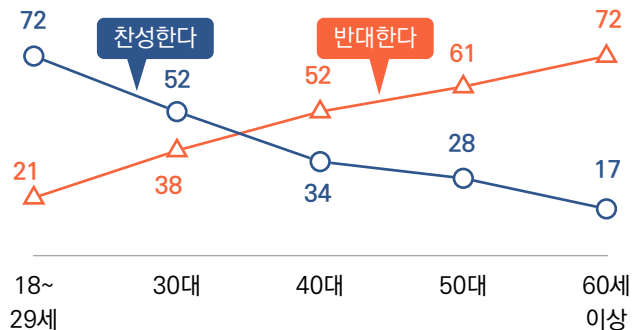
동성 결혼 법제화, '찬성' 38%, '반대' 52%

- 동성 결혼의 합법화는 기독교계의 뜨거운 이슈이다. 한국 갤럽이 동성 결혼 법제화, 즉 동성애자 커플에게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과 관련 국민인식 조사를 실시했는데, '찬성' 38%, '반대' 52%로 반대가 찬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찬성 의견도 국민 5명 중 2명 정도로 상당수 되었다.
- 동성혼 법제화에 대한 국민 인식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청년층의 73%가 '찬성한다'고 응답한 반면, '60대 이상' 고령층에서는 17%만 '찬성한다'고 응답해 동성 결혼 법제화에 대한 세대간 인식에 있어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그림] 동성 결혼 법제화에 대한 의견 (%)



[그림] 동성 결혼 법제화 찬반(연령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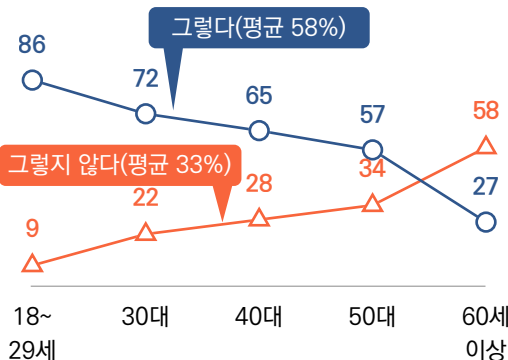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갤럽, '한국갤럽 리포트 제 448호' 2021.05.21.(전국 만 18세 이상, 1,0001명, 전화조사, 2021.5.18-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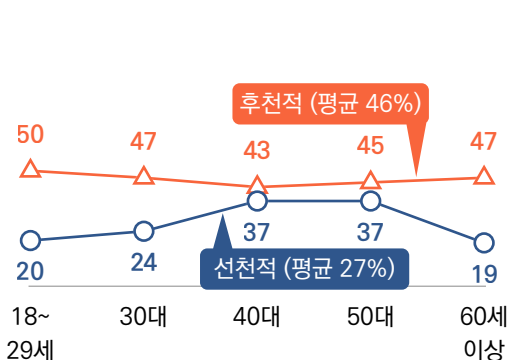
● 동성애도 사랑의 한 형태이다, '그렇다' 58%, '그렇지 않다' 33%

- 동성애를 사랑의 한 형태로 보는 것에 대해, '그렇다' 58%, '그렇지 않다' 33%로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은 동성애를 사랑의 한 형태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이에 대해서도 연령별로 극명하게 의견이 나뉘었는데, '동성애도 사랑의 한 형태이다'에 대해 '20대'의 86%가 동의한 반면, '60대 이상' 층에서는 27%만 동의했다.
- 동성애의 원인이 선천적인지 또는 후천적인지에 대해서는 전 연령대에서 선천적이기보다 후천적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림] '동성애 사랑의 한 형태이다'에 대한 의견 (%)



[그림] 동성애 기인 의견(선천적 vs 후천적) (%)



*자료 출처 : 한국갤럽, '한국갤럽 리포트 제 448호' 2021.05.21.(전국 만 18세 이상, 1,0001명, 전화조사, 2021.5.18-20)

2. 대학 입학생 감소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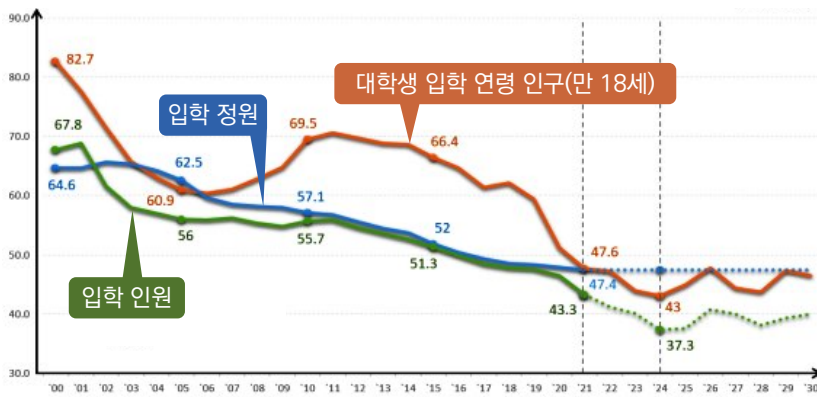
1



대입 연령 인구, 2021년을 기점으로, 입학 정원보다 적어지기 시작하여 2024년까지 급감 예상!

-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0년 출생자들의 대학 입학 시기가 되면서 대학 입학 연령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1년을 기점으로 만 18세인 대학 입학 연령(만 18세) 인구가 입학 정원보다 적어지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부족 현상은 계속 심화되어 2024년에 부족률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 까지는 그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연도별 대학 입학 연령 인구(만18세) 및 입학 정원 변화 추이(추계) (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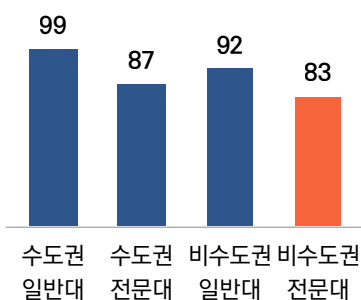


*자료 출처 : 교육부 보도자료, '학령 인구 감소 및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2021.05.20.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84467&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2&s=moe&m=020402&opType=N#>
 **학령인구는 통계청, 입학 정원 및 입학생은 2000~2020년은 한국교육개발원, 2021은 대교협, 2021년 대학 입학생 등록률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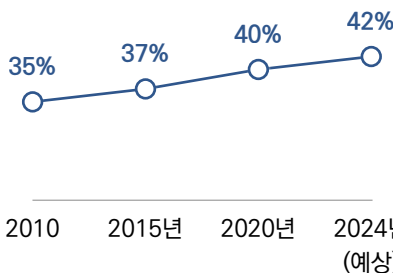
● 2021년도 대학 신입생 미달율, 비수도권 전문대가 가장 높아

- 2021년 대학교 신입생 총원율은 '수도권 일반대'가 99%로 가장 높았고, '비수도권 전문대'가 83%로 가장 낮았다. 즉 비수도권 전문대에서 미달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적으로 일반대보다는 전문대 미달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 이와 같은 현상은 대학교 신입생들이 해가 갈수록 '수도권 일반대'에 쏠리는 현상에 기인하고 있는데, 전국 대학교 대비 수도권 일반대 입학생 비중은 2010년 35%에서 2020년 40%, 2024년(예상) 4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2000년 대비 2021년 '고3 학생'은 42% 줄었고, '대학 입학 정원'은 27% 줄었으며, '신입생 수'는 36% 감소했다.

[그림] 대학별 입학생 총원율 (%)



[그림] 전국 대학 대비 수도권 일반대 입학생 비중 변화(연도별)



[그림] 2000년 대비 2021년 고3 감소 비율

최근 11년 간 고3 학생 수

42% 감소

*자료 출처 : 교육부 보도자료, '학령 인구 감소 및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2021.05.20.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정
치

[데일리 오피니언 제449호\(2021년 5월 4주\)](#)

[전국지표조사 리포트 제27호 \(2021년 5월 4주\)](#)

일
반

[“코로나19 아동 발달에 부정적 영향… 신체·언어 발달 지연”](#)

조선일보_2021.05.24.

[코로나에 ‘집콕’… 청소년, 5명중 1명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조선일보_2021.05.23.

[청소년 사망원인 1위, 9년째 바뀌지 않았다](#)

매일경제_2021.05.25.

[디지털 성범죄 가해 학생 90% “범죄라 생각 못 해”](#)

동아일보_2021.05.27.

사
회

[4200만원대 비트코인, 최고점 대비 반토막… 투자자들 “4차 산업혁명 가장한 사기” 패닉](#)

동아일보_2021.05.25.

["성인 58%, 최근 1년간 재무 상황으로 스트레스 경험"](#)

연합뉴스_2021.05.26.

[중소기업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 대기업 정규직의 44%](#)

경향신문_2021.05.25.

경
제

[가계 빚 1천765조 또 '사상최대'…생활고에 영끌·빚투까지](#)

연합뉴스_2021.05.25.

[코로나 와중에도 농어촌 소득 늘어난 까닭](#)

경향신문_2021.05.26.

[무디스, 올해 한국 성장률 3.5%로 상향 조정…"수출 기대"](#)

연합뉴스_2021.05.27.

[4월 카드승인액 15.3% ↑ …펜트업 소비에 두달째 두자릿수 증가](#)

연합뉴스_2021.05.23.

[해외 대신 제주로 몰리는 관광객…코로나 이전 90% 수준 회복](#)

연합뉴스_2021.05.27.

트
렌
드

[3D 아바타로 채팅하고 게임 캐릭터가 패션 론칭...가상·현실 융합 열풍](#)

중앙일보_2021.05.22.

[MZ세대 꿈 펼치는 무대, 폭력·선정적 콘텐츠 걸러내야](#)

중앙일보_2021.05.22.

국
제

[인구 팽창 시대 끝났다... "80년 뒤엔 나이지리아가 인구 1위"](#)

한국일보_2021.05.25.

["코로나19 살기 좋은 나라' 한국 5위...1계단 ↑" <블룸버그>](#)

연합뉴스_2021.05.26.

칼
럼

[기술과 인간의 경쟁, 학습사회로 가야하는 이유](#)

중앙일보_2021.05.24.

*기획특집- 외국인 230만 시대 (중앙일보)

1. [외국인 이웃 230만, 더불어 살 준비 됐나요](#) 2021.05.08.
2. ["야자수가 뭐예요" 다문화 학생, 말 안 통해 수업 스트레스](#) 2021.05.08.
3. ["고국 가지 말고 돈 벌라" 고용허가제 탓 가족 상봉 못 해](#) 2021.05.08.
4. ["한국말 열심히 배워도 '까불지 마' 무시" "외국인 거칠어 조심해야" 비딱한 시선 여전](#) 2021.05.11.
5. ["까무잡잡하다며 '똥남아인' 깔봐" 일손 돕는 이주민 '내로남불' 비하 심해](#) 2021.05.11.
6. [미·유럽, 아시아계 혐오 범죄 늘어 사회통합 위태](#) 2021.05.11.
7. [한국은 외국인 근로자 없이 버틸 수 없는 나라가 됐다](#) 2021.05.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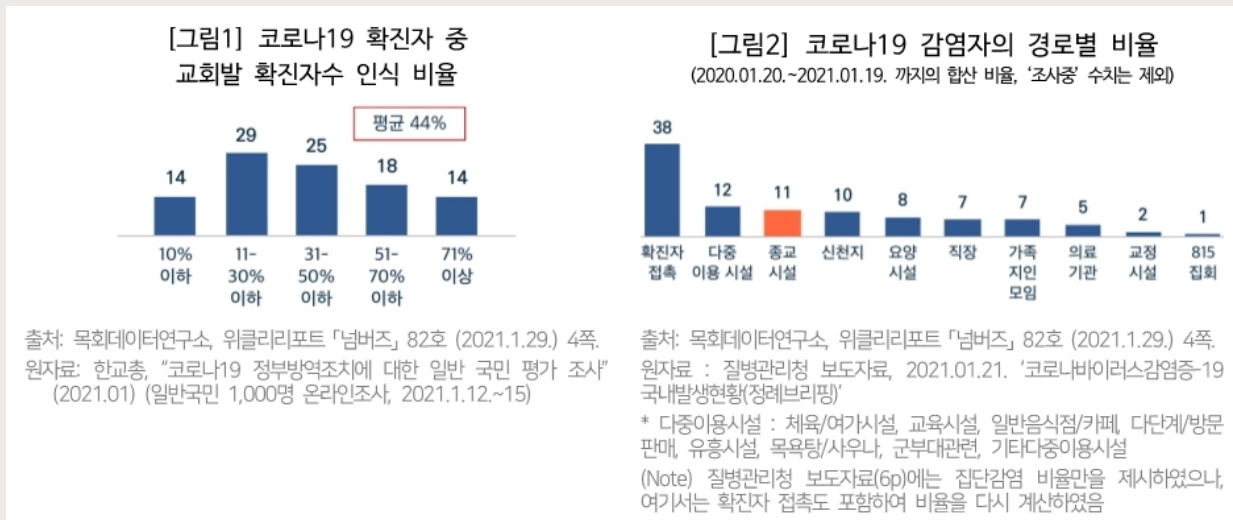
넘버즈 칼럼

코로나19와 한국교회의 과제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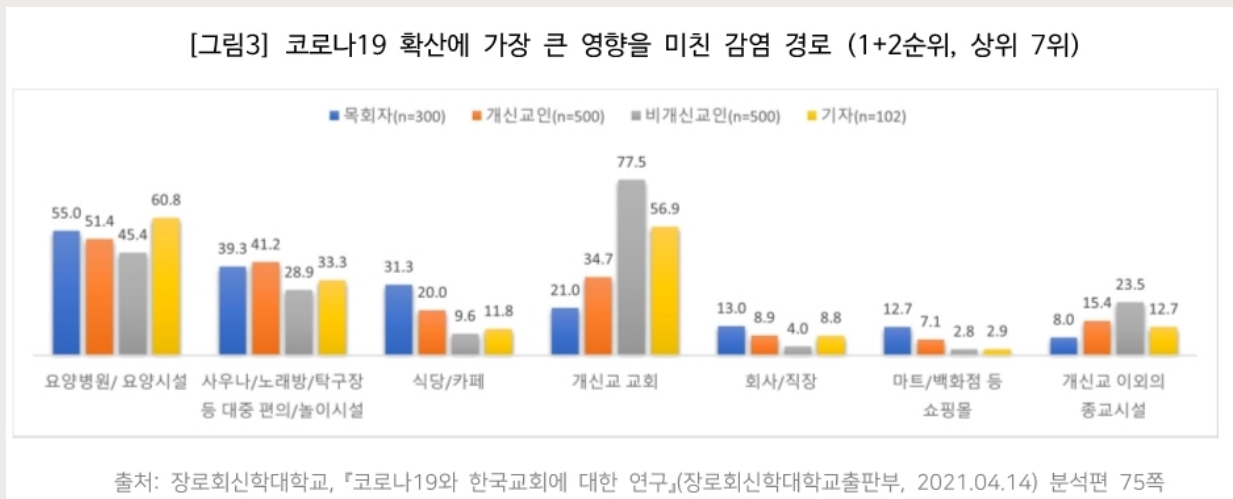
임성빈 교수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44,11,77.5

44, 11, 77.5, 이 숫자들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직면한 현실이며, 또한 과제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44’는 국민의 44%가 코로나19 확산에 교회의 영향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수치이며[그림 1], ‘11’은 정부가 공식발표한 코로나19 감염의 전체 경로 중 종교시설 관련 감염이 차지하는 비율인 11%를 의미한다[그림2]. 그리고 시점을 다소 달리하는 조사결과이지만 [그림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개신교인들의 77.5%가 교회가 감염병 확산과 관련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사실과 인식 간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발표된 장로회신학대학교의 연구조사 『코로나19와 한국교회에 대한 연구』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2021), (<https://www.youtube.com/watch?v=8YQ4-LkuqtE>)는 교회에 대한 언론·미디어 및 정부의 프레임과 그에 영향을 받는 사회여론의 동조화에 의해 이러한 간극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세 숫자가 한국교회와 신앙인들에게 주는 시사점

이렇듯 교회에 대한 사실과 사회의 인식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들은 앞으로 한국교회와 신앙인들이 어떠한 태도로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 시사점을 준다. 이를 크게 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무엇보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과 대안을 마련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연구는 추락하는 한국교회의 대사회적 신뢰도와 이미지 회복을 위해서 요청되는 기본적 연구가 될 것이다.

둘째, 이러한 연구를 위하여 과학적인 데이터와 지속적 분석 작업이 더욱 요구되는데 과학/의료계와의 협력과 대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앞에서 언급한 조사와 연구는 교회에 대한 프레임, 특히 언론을 통하여 매개되는 교회에 대한 프레임으로 인해 사회여론이 주요하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점에서, 교회와 신앙인들에게 언론의 프레임에 대한 성찰이 요청된다. 또한 사실에 입각한 대사회적 소통과 사회적 공동선을 위해 언론과의 지속적 소통과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사회, 특히 언론계는 교회를 미디어로 인식한다. 우리가 언론계를 주요한 미디어로 인식하고 분석하고 비판하듯이, 저들은 교회와 신앙인들에게서 보이는 사회적 관련 현상들을 관찰, 분석, 비판한다. 따라서 교회와 신앙인들은 자신들의 발언과 행위가 곧 사회적 분석과 비판의 대상, 즉 교회를 넘어 사회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은 교회의 언어와 행위에 있어서 사회와의 긍정적 소통을 위한 공공성에 대한 인식 강화를 요청한다. 이는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교회가 메시지를 전달할 때, 용어와 개념을 사려 깊게 선별하고 소통의 역할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뜻한다. 특별히 디지털 사회화로 인해 교회 안과 밖의 소통 영역이 모호해진 상황에서, 교인들을 향한 교회 내부적 메시지에 익숙한 목회자들이 대사회적 파급력을 가지는 주제에 대해 언급할 때는 전문가들의 자문 과정이 필요하다. 더욱이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당파적 양극성이 심화되는 오늘의 현실을 감안할 때 해당 전문 분야에 대한 발언은 그 분야의 제사장으로 부름 받고 훈련받아 준비된 전문인 신앙인들이나 기관이 하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이다.

넷째, 복음의 수용성 확장을 위해서는 젊은 세대의 한국교회에 대한 이미지와 미래에 대한 깊은 성찰, 그리고 준비가 필요하다. 한국교회의 성장기를 거치며 교회문화의 긍정적 경험을 가진 기성세대와 달리 10대, 20대가 오늘의 한국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계속 고착화한다면 복음의 수용성은 더욱 위축될 것이다. 그러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복음 나눔을 위해 선교적 환경 변화 모색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한국교회의 앞날을 위해 참으로 중요한 과제라 판단된다. 이러한 시사점들을 요약해 본다면 소통과 협력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며 이는 한국교회와 신앙인들이 더욱 교회다워지고, 더욱 신앙인다워짐을 위한 철저한 신앙/신학적 반성과 실천적 삶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과제: 신앙인다운 신앙인, 교회다운 교회 세우기!

코로나19와 같은 세계적 재난을 통한 반성과 통찰은 신앙과 신학의 진정성을 추구함에 있어서 역설적으로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예컨대 18세기 말 리스본 대지진을 통해 낙관적 신정론(Theodicy)에 대한 비판이 촉발되었는데, 20세기 들어 양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러한 비판적 성찰이 더욱 강화되었다. 특히 아우슈비츠와 같은 전대미문의 경험은, 하나님의 의로움과 함께 악의 근원과 성격을 설명하는 전통적인 신정론과 그에 대한 질문의 틀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고통의 현장에서 무엇을 하시는가”로 질문과 답의 범주를 전환시켰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코로나19로 인한 질병 재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 질병과 재난의 관계는 무작위적 우연이거나 마냥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나름의 인과적 관계가 존재한다. 재난 발생 요인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더욱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인간과 자연의 관계 왜곡이 주요한 요인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것은 인간중심적 물질만능주의를 추구하고, 쾌락적 행복의 도구로 생태계를 환원시키는 탐욕의 문화를 좇는 가치와 문화에 대한 반성으로 우리를 이끈다. 특별히 우리가 산업화와 세계화로 상징되는 문명과 문화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약 영역, 예컨대 가난하고 병든 이들과 나이든 이들, 또한 충분한 의료자원을 갖추지 못한 나라들, 이른바 경쟁력이 약한 이들에게 이 재난이 더욱 치명적이라는 점을 주목하게 한다.

코로나19 이후 세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낙관론은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다. 세계적 분업과 아웃소싱을 당연시하던 분위기가 이제는 각국의 안전과 안보를 우선적으로 담보하는 현상과 더욱 노골적으로 충돌하고 있다. 즉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는 남이 아니며 서로 연계되어 있는 세계적 존재임을 인식하게 됨도 사실이지만, 이러한 연계됨이 오히려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인식이 오히려 인종주의, 지역주의와 국가주의를 강화시키고 있다는 말이다. 예컨대 중국인을 향한 혐오가 곧 아시아인 혐오로 이어지는 현상은 아직도 뿌리 깊은 오리엔탈리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반영하여 준다. 그러나 우리 아시아인들, 그중에서도 공통적 문화를 가장 많이 공유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과 일본인들 가운데는 아직도 서로를 혐오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참으로 모순적이다. 코로나19는 '분열자로서의 재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19 이후 교회와 신앙인들의 여전한 과제는 즉 하나님 나라 신앙/신학을 중심으로 한 자매와 형제로서의 세계 시민 의식 고양이라고 볼 수 있다. 아무리 세계화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된다 하더라도 과정(process)으로서의 세계화는 여전히 진행될 것이다. 물론 특정한 나라와 집단과 세력의 독점적 이익을 위한 기획(project)으로서의 세계화는 규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인간의 얼굴을 가진 세계화를 향한 참여와 실천의 어려움과 함께 그 필요성의 절박함을 깨닫게 하여 주었다.

우리는 오늘의 재난 극복을 위하여, 또한 재난 극복 이후 신앙인들과 교회가 이루려 애써야 할 문화의 내용과 방향성을 이러한 인식과 반성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우리는 개인주의와 물질주의를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 중심의 세계관과 가치체계에 대한 신앙을 명확하게 세워가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아버지 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 즉 자매 형제들로서의 인류애를 굳건히 함으로써 경제적 상황과 인종과 국가를 넘어서서 연약한 지체의 생명과 기본권에 가치를 두는 생명 중심의 삶을 실천함이 중요하다. 이것은 곧 하나님 나라와 의, 즉 영적 가치를 토대로 사회적 공동선의 확산 실천에 더욱 힘써야 함을 뜻한다.

2. 그러나 마스크 한 장으로 인하여 초래되었던 사회적 혼란과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는 주제가 교회만이 아니라 사회적 논쟁거리가 되는 일상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즉 하나님 나라 중심의 세계관과 가치 체계에 따른 신앙적이며 사회적 실천이 매우 이상적인 주장으로 보이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오늘의 재난은 개인과 우리 사회와 세계의 민낯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있다. 그 민낯의 많은 부분은 우리의 죄성이 악의 권세 앞에 발현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개인과 사회의 자기중심적 민낯이 드러나는 현실, 그 밑바탕에 뿌리 깊은 죄성이 자리하는 현실을 어떻게 변혁하여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이웃 친화적인 시스템과 문화를 형성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이다. 이러한 현실 인식은 오늘 교회의 우선 과제를 제시한다. 코로나19와 그 이후 교회의 역할은 여전히 신앙인의 신앙인 됨을 전제로 한다. 우리가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되는 만큼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오늘의 재난은 신앙인들에게 악과 죄와 고통의 현실을 깊이 인식하게 한다. 신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재난 한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신다는 것과 고난당하는 이웃과 사회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것을 촉구한다.(요 9:1-7)

3. 교회와 신앙인들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함이 첫째 되는 목적이며, 이웃을 사랑함이 그와 동시에 행해져야 할 목적이다.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그 이웃의 범위는 넓어지게 된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게 됨과 동시에 나와 우리 민족만이 아니라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함을 깨닫게 된다. 또한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성숙해 갈수록 하나님은 나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죄와 악으로 뒤틀린 이 세상도 여전히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나를 신앙인으로 부르신 이유, 나와 너를 교회로 함께 존재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 세상이 그 사랑을 받아들여 구원받기 위함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삶으로 살아가는 만큼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 코로나19 이후의 교회는 더욱 교회로서의 기본을 회복하고 강화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교회의 교회됨은 신앙인들을 더욱 신앙인다운 신앙인으로 양육함이 우선이다!

4.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이시자 구속주이시기에 우리는 신학뿐만 아니라 철학과 사회과학, 정치와 언론 영역에 대해서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모든 영역이 죄로 인하여 뒤틀려 있음이 사실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철학과 사회-자연과학과 언론-정치 모두 일반은총

일반은총의 영역에서 나름의 역할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 역시 자신들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어긋나는 세계관과 가치를 생산하며 반생명적 문화를 확산함을 경계하고, 경고하며 제어하도록 힘써야 한다.

이러한 사역을 교회가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는 더욱 신앙인들이 세상 안에서도 책임적 삶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하여야 한다. 일반은총에 속한 여러 영역들, 특히 자연-사회과학, 철학, 언론-정치 등의 영역과의 소통과 그 영역들에 대한 신앙적 해석과 응답이 신앙인의 신앙인 됨에 주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 모두가 이 모든 영역의 전문가가 될 수는 없다. 이때 우리가 기억하여야 할 것은 '만인제사장', 즉 자신의 영역에서 모두가 제사장적 역할을 한다는 신앙적 각성이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성도들의 책임적 사회 참여, 교회 사역의 역할 분담과 연계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목회 방향성과 교육, 정책 결정의 구조변혁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한반도평화연구원의 <KPI Issue Brief 제 13호>(2021.05.26)에 실린 글입니다 .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자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노량진교회, 당진동일교회, 대구내일교회, 밀양남부교회, 백주년기념교회, 베다니교회, 새에덴교회, 서현교회, 서울서문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교회, 수원북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중앙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예향교회, 연동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류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전주기쁨의교회, 주안장로교회, 중앙성결교회, 진주삼일교회, 지구촌교회, 창동염광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성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재)기독교선교행복,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사)사단법인 아시안미션, 서대문ESP, 서울노회아동부연합회(예장통합),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장로회신학대학교, 제이제이경제연구소, 지앤컴리서치, 한국 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목회, 한빛누리, 한국기부문화연구소, (재)CBS, CBMC 광주지식포럼, CBMC 행복한지회, CCC 사역연구, GoodTV(가나다 순)

후원 기업 | (주)그랑블루, 동광에스아이, (주)마뜨,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셀파 C&C, (주)시스코프, (주)예중세무법인,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든건강과학, (주)하츠/(주)벽산 CNP코퍼레이션 (가나다 순)

후원 개인 | 고재환, 금교성, 김관상, 김명준, 김상근, 김상래, 김성렬, 김성은, 김시은, 김영훈, 김윤철, 김윤환, 김은선, 김재욱, 김주룡, 김주형, 김지현, 김현모, 김형태, 김홍일, 김흥기, 남성태, 류지성, 박노석, 박미경, 박영철, 박재찬, 박준상, 박진규, 박진철, 박우빈, 박세용, 박홍래, 반기민, 배수정, 석승호, 송섭, 안정호, 안태근, 엄정석, 여삼열, 유성민, 유형창, 윤여민, 이광호, 이대식, 이덕희, 이만민, 이미경, 이병희, 이상호, 이영선, 이완중, 이인성, 이정규, 이주일, 이창준, 이춘봉, 이현식, 이훈희, 임성빈, 임현주, 장명희, 장병우, 장우성, 장형철, 전응림, 전치영, 정종섭, 정준, 정희수, 조용민, 조창오, 최상헌, 최준혁, 최은아, 함용태, 호재민, 홍익숙, 홍혜숙(가나다순)

신규 후원 | 이현구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일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후원 방법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목회데이터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 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 CBS
(재) 한빛누리
한국 교회탐구센터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원장)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김준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실장 | jy0113@mhdata.or.kr
박태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간사 | mhdata@mhdata.or.kr

MOU 기관 |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기아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아드폰테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햇볕회